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2010년 중국 외환보유액 및 대출규모 사상 최대 기록

-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작년 중국정부의 외환 보유액 및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규모가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작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작년 4/4분기(10~12월) 증가액이 사상 최고인 1,99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18.7% 증가한 2조 8,473억 달러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함.
 - 또한 작년 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연간 신규대출 잔액도 전년대비 19.9% 증가한 7조 9,500억 위안(약 1조 2,000억 달러)을 나타내 정부 목표치인 7조 5,000억 위안을 큰 폭으로 상회함.

-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최근의 외환보유액 및 대출규모 급증세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, 은행 지급준비율을 포함한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5년 당시 세계 1위였던 일본을 처음으로 상회한 이후 줄곧 1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으며, 현재 2위 일본의 약 2.6배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현재 속도가 유지될 경우 올해 1분기 내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.
 - 이러한 외환보유액 급증은 외자유치 및 무역흑자 증가세,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핫머니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,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등 인민은행의 환율 시장개입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 - 대다수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 및 대출규모 급증세가 하반기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금융긴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과잉 유동성 해소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및 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(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, 로이터, 1/12)